

전역, 사회로 나아가는 성공의 길

제대군인지원센터



경기북부 제대군인지원센터
경기 의정부시 시민로 80, 1103호
(의정부동, 센트럴타워)

서울 제대군인지원센터
서울 서초구 방배로 73, 3층
(방배동, 양지빌딩)

인천 제대군인지원센터
인천 미추홀구 석정로 239, 1층
(도화동, 정부인천지방합동청사)

경기남부 제대군인지원센터
경기 수원시 장안구 조원로 8, 별관 2층
(영화동, 경기남부보훈지청)

광주 제대군인지원센터
광주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 1층
(오룡동,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강원 제대군인지원센터
강원 춘천시 소양강로 10, 915호
(후평동, 춘천B&I지식산업센터)

대전 제대군인지원센터
대전 서구 한밭대로 713, 5층
(월평동, 대전지방보훈청)

대구 제대군인지원센터
대구 달서구 화암로 301, 저층부 3층
(대곡동,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

부산 제대군인지원센터
부산 중구 중앙대로148번길 13, 4층
(중앙동4가, 부산지방보훈청)

경남 제대군인지원센터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305, 2층
(서성동, KT서성빌딩)

취·창업지원
1:1 전담상담사 배정 맞춤형 상담 서비스,
전직지원금 지원, 채용정보 제공 및 취업알선,
이력서·면접 클리닉 등

워크숍
취업역량강화, 변화관리, 특강, 창업워크숍 등

직업훈련
위탁교육, 직업능력개발교육비 지원,
귀농귀촌 프로그램 등

사이버 교육
자격증 취득 관련 등 취·창업에 필요한
강좌 제공

멘토링 상담
성공 제대군인 멘토 온·오프라인
실전 경험 전수

제대군인지원센터로 오십시오.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라
5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 준사관, 부사관으로 전역했다면
누구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www.vnet.go.kr) 회원가입 필수



www.vnet.go.kr

군 인 친 구
1666-9279
전 국 1 0 개 센 터 대 표 번 호

라:스팩 제대군인

2025 July Vol.233

리:스팩 제대군인

2025 July Vol.233

Re play

군특성화교사로 교단에서
다시 시작된 군인의 사명

Re connect

정부가 만드는 일자리, 지금 잡아라!

Re new

챗GPT 편리함,
이면의 리스크를 묻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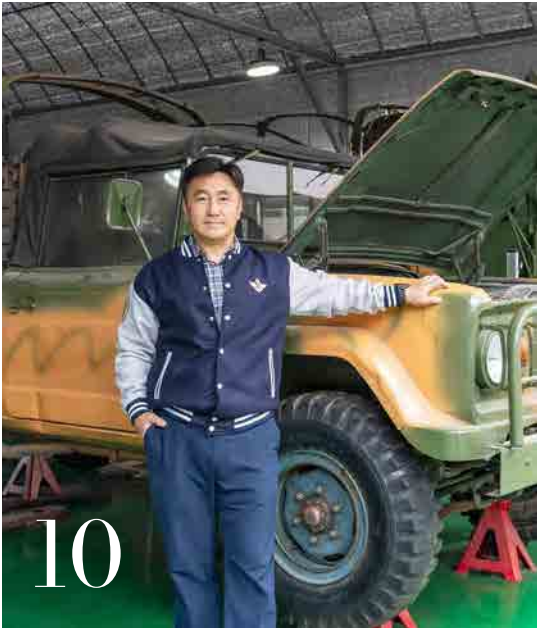


조승제
예비역 육군 중령

Contents



**리:스펙
제대군인**
2025 July Vol.233



07

Re play

- 04 **리마인드**
내가 가장 생각하는 것은 []이다
- 06 **지금 우리는**
어르신 손에서 태어난 기적, 장난감의 순환 이야기
사회적기업 '코끼리공장'
- 10 **인사이드 스토리**
교단에서 다시 시작된 군인의 사명
조승제 예비역 육군 중령
- 14 **위대한 전환**
창업의 성공은 군인정신으로부터 시작한다
김재균 예비역 육군 소령

Re connect

- 18 **커리어 맵**
정부가 만드는 일자리, 지금 잡아라!
정부 '직접일자리' 한눈에 보기
- 20 **스페셜 리스트**
미래를 여는 힘, 그린+디지털 신(新) 일자리 지도
차세대 유망 직업 10가지 탐구
- 24 **금빛 상담소**
번아웃, 나를 구하는 현실 셀프케어
정지하
- 26 **지식 산책**
광복 80주년 기념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기출문제로 보는 역사와 보훈 지식
대한광복회
- 28 **미디어 로그**
전자발찌 착용자를 24시간 밀착 감시하는 범죄 예방의 최전선
무도실무관

Re new

- 32 **전문가 칼럼**
챗GPT 편리함, 이면의 리스크를 묻다
이임복
- 34 **뜻있는 여정**
전쟁의 기억 위에 핀 삶과 평화의 동산, 마추픽추
부산
- 38 **센터는 지금**
경남제대군인지원센터
- 42 **독자 광장**
여름의 한가운데, 나를 위한 리셋
7월, 꿈에 불을 지피는 자기계발서

통권 233호
발행일 2025년 7월 1일
발행처 국가보훈부
발행인 강정애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기획 국가보훈부 제대군인국
제대군인일자리과(044-202-5731)
발간등록번호 11-1830000-000002-06

 www.facebook.com/mpvakorea
 www.youtube.com/user/mpvakorea
 www.instagram.com/bohun_story
 x.com/hun2day
 blog.naver.com/mpvalove

 QR코드를 통해 <리:스펙 제대군인>
웹진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리:스펙 제대군인>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www.mpva.go.kr),
제대군인지원센터 홈페이지(www.vnet.go.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내가 가장 생각하는 것은 []이다

“삶의 행복은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려 있다.”
— 로마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지금, 당신은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해야 할 일, 잊고 싶은 과거, 붙잡고 싶은 누군가,
아니면 아직 도달하지 못한 미래의 나?
‘생각’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하루를 움직이고, 말과 행동을 결정하며,
결국 삶 전체를 빚어내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분명한 진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반복해서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생각은 내면의 나침반입니다.
순간 스쳐가는 것 같지만,
되풀이될수록 그것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성격이 되며, 성격은 결국 삶의 방향을 정합니다.
그래서 하루의 끝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나는 오늘 어떤 생각을 가장 오래 붙들고 있었는가?”
그 질문 하나가 내일을 다르게 만듭니다.

7월, 생각을 새롭게 세우는 시간.
“내가 가장 생각하는 것은 []이다.”
이 문장을 당신의 언어로 채워보세요.
그 순간부터,
당신의 7월은 방향을 바꾸기 시작할 것입니다.

어르신 손에서 태어난 기적,
장난감의 순환 이야기

사회적기업 '코끼리공장'

글 박선경 사진 최다영

버려진 장난감에서 시작된 따뜻한 발상이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했다. 울산에서 시작한 '코끼리공장'은 고장 난 장난감을 수리해 아이들에게 기부하고, 사용이 불가능한 장난감은 분해해 자원으로 재탄생시키는 순환경제 모델을 실천하고 있다. 특히 은퇴한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며, 아이들의 웃음과 지구의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지켜가고 있다.



수리와 재활용, 그 너머의 가치

코끼리공장의 시작은 울산의 자원봉사단체 '아빠장난감수리단'이었다. 간단한 고장에도 버려지는 장난감이 아깝다는 마음에서 출발한 이 활동은 2014년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으며 본격적인 사회적 실험으로 확장됐다. 이후 2022년부터는 노인일자리 사업과 자원순환 활동이 본격화되었고, 현재 울산 본사 110명, 부산 동구점 50명 등 약 160명의 어르신이 함께하고 있다. 이곳에서 어르신들은 하루 3~4시간, 주 15시간 이내로 근무한다. 단순한 노동이 아닌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주체로서 각자의 연륜을 살려 서로를 도우며, 코끼리공장은 일자리 이상의 의미를 품은 공동체가 되었다.

'거북이공장'으로 다시 태어난 자원

코끼리공장에서 분해·가공된 플라스틱과 장난감은 '거북이공장'이라는 브랜드를 통해 새로운 제품으로 태어난다. 조끼, 모자, 수건, 장갑 등 작업용품은 물론, 운동화, 블록, 조명, 판재, 안전손잡이 등 다양한 생활 제품으로 재탄생한다. 부산 동구점에서는 장갑을 직접 생산하고 있으며, 그 외의 제품은 생산 후 가져와 검수, 자수, 각인, 포장까지 모든 공정에 어르신들이 참여한다. 이 제품들은 ESG 경영을 실천하는 공공기관과 공기업, 교육기관 등에 주로 납품되며, 일부는 개인의 교육 목적으로도 판매된다. 2024년 기준 약 280톤의 PET병과 뚜껑, 장난감 자원을 재활용했으며, 매출은 3억 4천만 원을 기록했다. 이 중 30%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 환원되어 다시 노인일자리 창출에 쓰이고 있다.



아이들에게 환경을, 지역에는 순환을

코끼리공장은 제품 생산에 그치지 않고 환경교육과 체험 활동에도 힘을 쏟고 있다. 교육 프로그램은 장난감 분해로 시작된다. 아이들은 장난감이 왜 재활용 쓰레기로 분류되지 않는지를 배우고, 폐자원을 간 가루 플라스틱에 레진을 넣고 나만의 키링을 제작하는 과정을 통해 자원의 소중함을 체득한다.

‘1인 1교환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고장 나거나 싫증 난 장난감을 가져오면 다른 장난감으로 교환해 주는 이 프로그램은 물건의 순환적 사용 가치를 자연스럽게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부산시와 협력해 구축 중인 ‘우리 동네 ESG센터’도 주목할 만하다. 부산시 16개 구·군 전역에 지역 순환 거점을 마련하고, 15분 도시 전략과 연계해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자원 순환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5곳이 개소했으며, 하반기에는 중구와 강서구에도 문을 열 예정이다.

함께 만드는 착한 변화

코끼리공장에는 하루 평균 30박스, 많게는 400박스에 달하는 장난감 택배가 전국 각지에서 도착한다. 이는 단순한 자원의 흐름을 넘어선다. 더 많은 아이들을 도우려는 시민의 연대이며, 노인 일자리를 지키려는 사회의 응답이다. 코끼리공장이 하고 있는 일은 국가가 미처 해내지 못한 영역을 메우는 일이다. 이들의 실험이 더 많은 이들에게 알려지고, 지속 가능한 착한 순환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길 기대해 본다.



장난감 기부를 원한다면?

- ✓ **기부 가능한 장난감:** (30cm 이하) 중소형 크기의 플라스틱 장난감
*정상 작동 / 부품 없음 / 고장 및 파손 모두 가능
- ✓ **택배 기부:** 울산 울주군 웅촌면 당고개1길 42-25 제1동, 제2동
*반드시 선불 택배 이용
- ✓ **홈페이지:** <https://www.kogongjang.com/>



I N T E R V I E W

제대군인과 함께 성장하는 코끼리공장

“제대군인 선생님들과 함께하면 현장이 든든해집니다”

코끼리공장은 1호점을 운영할 때부터 제대군인지원센터와 공무원연금공단 등 여러 기관에서 인재를 추천받아 왔습니다. 현재도 두 분의 제대군인 선생님이 함께 근무하고 계십니다. 채용 입장에서 보면, 제대군인들은 확실히 규칙적인 근무 습관이 몸에 배어 있어요. 어떤 일이든 먼저 나서시고, 책임감도 강하고, 팀원들과 잘 융화되십니다. 주변 정리나 현장 정돈도 정말 잘하셔서 늘 믿음이 갑니다.

특히 저희 작업 특성상 손이나 도구를 많이 사용하는데, 제대군인들은 이해도 빠르고 다양한 현장 경험을 살려 적응을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회사와 뜻이 맞는 분이라면 최대한 채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5년 하반기에는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고, 제작부터 판매·홍보까지 다양한 업무가 필요해질 예정입니다. 이런 시기에 제대군인 선생님들의 꼼꼼함과 통솔력이 큰 힘이 될 거라고 믿어요. 무엇보다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퇴직 후의 또 다른 전성기’를 건강하고 활기차게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이 행복하게 일하실수록, 저희 회사도 자연스럽게 성장할 거라 생각합니다.



금호연
팀장

“버려진 장난감에 생명을, 내 인생에도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1988년에 입대해 2009년까지 21년간 군 생활을 했고, 전역 후에도 지역 예비군 중대장으로 일하면서 오랫동안 군과 함께했어요. 정년퇴직 후엔 요양보호사 자격증도 따고, 여러 가지 일에 도전해 봤지만 마음이 잘 안 맞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올해 2월 코끼리공장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하루 3~4시간 부담 없이 일하고, 오후에는 제 생활을 즐길 수 있으니 하루가 참 알차게 느껴집니다. 무엇보다도 함께 일하는 동료들과의 분위기가 좋아서 즐겁게 일하고 있어요.

장난감 분해, 소독, 재활용은 군과는 전혀 다른 일이지만, 책임감과 협동심, 솔선수범 같은 군대에서 익힌 기본 자세는 여기에서도 그대로 통하더라고요. 특히, 우리가 손질한 장난감이 저소득층 아이들이나 해외 난민에게 전달된다고 생각하면, 큰 보람을 느낍니다. 그냥 일하는 게 아니라,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제대군인 선배로서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역 후에는 하고 싶은 일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돈보다는 ‘내가 오래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을 찾으면, 제2의 인생이 훨씬 행복해질 거라 믿습니다. ☺



김석준
제대군인

군특성화교사로 교단에서 다시 시작된 군인의 사명

조승제
예비역 육군 중령

다시 전우를 키우는 삶

군복을 벗었지만, 그의 발걸음은 다시 군을 향하고 있다. 이번에는 계급장을 단 엄한 교관이 아닌, 아이들의 서툰 질문에도 미소 짓는 따뜻한 선생님의 모습으로 말이다. 조승제 예비역 육군 중령은 현재 경남 진주의 경남자동차고등학교에서 군특성화교사로 재직하고 있다. 그는 오늘도 교실에서 장차 제복을 입게 될 청소년들에게 첫 번째 전우가 되어주고 있다.

글 박선경 사진 최다영

JO SEUNGJE

꿈은 바뀌어도 삶은 계속된다

어릴 적부터 그는 사람을 좋아했고, 몸을 움직이는 것을 즐겼다. 공 하나만 있으면 운동장이 곧 놀이터가 되었고, 교실 끝 창가에선 친구들의 웃음소리를 멜로디 삼아 노래를 불렀다. 고등학교 시절에는 합창단 활동을 하며 성악가의 꿈을 키웠지만, 대학 입시에 실패하면서 그 꿈을 접어야 했다.

하지만 첫 번째 꿈이 멈췄다고 해서 삶이 멈추지는 않았다. 대학에 진학한 후에도 그는 음악 동아리에서 무대를 오르내리며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다. 매 순간 그는 사람들 사이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온몸으로 배워나가고 있었다.

그런 일상 속에서 아버지가 들려주시던 월남전 이야기들이 자연스럽게 스며들었다. 해병대 출신 아버지 특유의 절제된 언어와 묵직한 삶의 무게감은 어느새 그의 내면에 하나의 나침반을 만들어놓았다. '책임질 줄 아는 삶, 누군가를 지키는 삶.' 그런 가치관이 결국 그를 1995년 3사관학교 입교라는 결심으로 이끌었다. 극적인 사건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흐름이었고, 동시에 단단한 출발이었다.

철책 너머에서 배운 진짜 동료애

소위로 임관한 후 그가 배정받은 병과는 수송이었다. 병력과 물자가 흐르는 길을 책임지는 중요한 자리였다. 7공수여단 수송대장으로 시작해 2작전사령부, 국군수송사령부에서 참모직을 수행하며 지휘관과 참모 사이의 균형, 현장과 전략의 중간 지점을 몸으로 부딪치며 익혀나갔다.

그런 그에게 군 생활의 전환점이 된 사건이 있었다. 12사단 수색대대 소속으로 남한 최북단 865GP장으로 근무하던 1996년 9월이었다. 6개월의 혹독한 GP 근무를 마치고 철수 준비를 하던 바로 그날, 강릉 무장공비 침투 사건이 발생했다. 북한 무장공비가 잠수함을 타고 침투했다는 소식에 철수는 즉시 취소되었고, 그는 그날부터 두 달 가까이 긴장과 추위, 불안 속에서 부대를 지켜야 했다.

이런 경험들이 쌓여가면서 그는 군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히 해나갔다. 논산훈련소 참모로 근무하던 시절에는 간호장교로 복무 중이던 현재의 아내를 만나 가정을 꾸리기도 했다. 아내는 먼저 제대하여 김해중앙여자고등학교에서 보건 교사로 재직 중이다.



계급은 올라갔지만 마음은 비어갔다

시간이 흐르면서 묘한 공허감이 찾아왔다. 계급은 하나씩 올라갔지만, 군인의 숙명처럼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은 늘 부족했다. 그 아쉬움은 점점 마음 한구석에 그림자를 드리우기 시작했다. “더 늦으면 안 될 것 같아 결단을 내렸어요. 지금 아니면 정말 소중한 것들을 모두 놓치고 말 것 같았거든요.”

23년간 복무한 그는 2018년 중령으로 명예롭게 퇴역했다. 전역 후에는 국제라이온스협회 사무국장으로 1년간 근무하며 국내외 봉사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분명 의미 있는 일들이었고, 가슴이 뛰는 순간들도 많았다. 그러나 돌아해보면 그 모든 헌신 속에서 정작 ‘조승제’라는 개인은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었다. “다른 사람들을 돕느라 바빴는데, 정작 제 내면은 텅 비어가고 있더라고요. 무엇보다 전역하면서 생각했던 가족과 내 삶의 여유를 찾을 시간이 없었어요.”



교실에서 찾은 새로운 소명

그런 그에게 경남제대군인지원센터에서 온 연락은 마치 가뭄 끝에 단비 같았다. 군특성화교사 채용 공고가 시작되었다는 소식이었다. 센터의 취업 간담회와 실무 상담, 서류 작성법 안내 덕분에 그는 차질 없이 준비를 마칠 수 있었다.

2019년 2월 1일 그는 경남자동차고등학교 자동차과의 군특성화교사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다. 마침 국방부 군특성화사업이 전국 23개 학교 40개 학과로 대폭 확대되던 해이기도 했다. 그가 맡은 자동차과는 기존 엔진차는 물론 최근 군에도 보급되고 있는 전기차까지 모든 차량 정비를 실습 중심으로 가르친다. 벤츠, 볼보 등과의 협업 관계도 구축하고 있어, 제대 후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한 연계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경남자동차고등학교 군특성화사업은 자동차과와 전기·전자과에 각각 20명씩 총 40명의 신입생을 선발하며, 평균 경쟁률은 3:1 이상에 달한다. 입학생에게는 연간 130만 원의 지원금과 실습비, 방과 후 수업료가 전액 면제된다. 지난해에는 기숙사까지 완공되어 더욱 안정적인 교육 환경이 마련되었다.

지금까지 총 120여 명의 제자를 배출했고, 실제로 중사까지 진급한 졸업생도 있다. 휴가를 나와 학교를 찾는 제자들도 많다. 후배들에게 선배로서 조언을 아끼지 않는 모습을 볼 때마다 교사로서 큰 보람과 자긍심도 느낀다.

계급장을 벗고 찾은 진짜 자유

그는 처음 교사가 되었을 때 계급장을 내려놓는 일이 가장 어색했다고 회상한다. “학교는 전부 평교사니까요. 처음엔 어색했는데, 계급을 내려놓으니 마음이 편해졌고 성격도 유해지고, 인간관계도 더 넓어졌습니다.”

군특성화교사의 근무는 주 4일제(화~금)이며 방학도 있다. 23년간 쉴 틈 없이 달려온 그에게는 새로운 여유가 생겼다. “지금이야 제 인생에서 가장 여유로운 시기 같아요. 교사인 아내도 같은 시기 방학해서 함께 여행도 다닐 수 있고요.”



하지만 여유로워졌다고 해서 손을 놓고 있지는 않는다. 그는 현재 학생들의 군 적응을 돕기 위해 군 관련 기초 지식부터 병과 선택, 부대 생활 요령까지 현실적인 멘토링을 제공하고 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전반기·하반기 각 1회씩 제자들의 부대를 직접 찾아가 확인하는 ‘추수지도’도 병행하고 있다.

새로운 전우들을 향한 따뜻한 응원

삶의 방향을 다시 세운 이 경험은 경남제대군인지원센터 멘토가 되어 같은 길을 걷게 될 후배 제대군인들에게 조심스럽

지만 깊은 마음으로 조언을 건넨다. “직업이란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니라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나침반입니다. 군대에서 달고 있던 계급을 깨끗이 내려놓고, 진짜 자신과 마주하는 용기를 가져보세요. 거기서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그의 마음속엔 늘 제자들을 향한 간절한 바람이 자리하고 있다. “우리 아이들이 군에서 장기 복무하며 상사, 원사, 준위까지 성장해 군의 핵심 자원이 되길 바랍니다. 군과 사회 모두에 꼭 필요한 인재로 자리잡으면 좋겠어요. 물론 군이 맞지 않아서 제대를 하더라도, 자신에게 맞는 자리를 찾아 성공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들에 대한 자부심도 빼놓을 수 없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 학군 64기 장교로 내년에 초급간부가 되는 아들도 힘든 장교의 길을 택해 주어서 대견합니다. 항상 건강하게 우리 군의 초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총을 들지는 않지만, 그는 매일 누군가의 ‘용기 있는 첫걸음’을 응원하며 살아간다. 그가 서 있는 교실은 많은 청소년들에게 ‘군대’라는 세계로 들어서는 가장 따뜻하고 든든한 문이 되고 있다. 조승제 중령의 새로운 사명은 이제 막 시작된 셈이다. 45

조승제 예비역 중령의 인생 철칙

모든 것은 마음먹기 나름입니다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 삶의 방향은 결국 내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저는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시선과 태도를 잃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할 일은 오늘 끝냅니다

미루는 습관은 결국 나를 더 힘들게 만든다는 것을 군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매일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저의 일상 원칙입니다.

먼저 듣는 사람이 결국 더 큰 신뢰를 얻습니다

대화를 시작할 때는 말보다 ‘경청’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자세는 사람과 사람을 잇고 관계를 지켜주는 가장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2024년 제대군인
취·창업 성공 후기 공모전
장려상

창업의 성공은 군인정신으로부터 시작한다

김재균

예비역 육군 소령

가정은 군인으로서의 삶의 밑바탕이었다

학군장교로 복무하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 한없는 충성과 헌신을 바쳤던 예비역 육군 소령입니다. 저는 군인 가족으로 태어나 눈뜨고 퇴근할 때 아버님의 전투복을 항상 보며 군인의 길이라는 꿈을 키워왔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군인인 가족들은 저의 존경의 대상이었고, 그들의 헌신과 용기를 보며 성장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군인 가족으로서의 대단한 자부심과 함께 자란 덕인지 군인의 길을 망설임 없이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가문은 3대에 걸쳐 군 복무를 이어온 병역명문가로, 친할아버지는 켈로부대 출신, 아버지는 특전사 출신, 외할아버지는 6.25 참전유공자로 국가유공자 후손 집안입니다. 이는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국민으로서 매우 자랑스러운 일이며, 저 또한 이 전통을 이어받아가문의 이름과 명예를 드높이고자 하는 마음으로 장교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군인으로서의 헌신과 용기를 보며 성장한 삶의 배경은 장교로 임관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며 장교로 군 복무를 하게 되었고, 다양한 부대를 경험하며 리더십과 전략적 사고를 배양했습니다. 제 좌우명은 '뜻이 있으면 반드시 이루리라'라는 유지자사경성(有志者社竟成)인데, 이는 제 군 생활과 목표 달성에 큰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여러 차례의 훈련과 실전 경험을 통해 강한 체력과 정신력을 길렀고, 자기계발을 게을리하지 않은 덕에 부대 내에서 여러 차례 우수 장교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군인의 불타는 열정으로 창업시장에 뛰어든다

군 복무를 하면서 막연히 사회에 도전해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군 생활을 누구보다 성실히, 성공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군을 넘어 사회에도 부딪혀 보고 싶었습니다. 선배들과 동료들은 군 출신이 지금껏 창업으로 성공한 적이 없다며 저를 만류하기 바빴습니다. 이 점은 제 도전정신에 불을 붙였고, 군 출신 창업가가 꼭 성공을 보여주리라 다짐으로 깊은 고민을 한 뒤 전역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군 복무를 마치고 나서 새로운 도전을 찾아 창업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육군 소령으로 전역할 때, 군에서는 중견간부였지만 사회에서는 새로운 경험으로 시작하는 마음가짐을 갖고, 군에서의 안 좋은 행동과 사고를 떨쳐내고, 군에서 전역한 저는 사회초년생으로서의 자세로 새로운 도전에 나섰습니다.

창업 아이디어를 구상하던 중 비대면 구두, 운동화 수선 배송 플랫폼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군 복무 중 품위 유지를 위해 전투화 광택을 내던 경험과 사회에 나와서 구두를 신다가 구두굽이 부러져도 주변에 구두수선대가 없어 해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때 주변에서 구두수선을 할 곳을 찾는 데 30분 이상이 걸리고 수선시간도 20분이 넘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상적인 불편함에서 비롯된 아이디어가 '슈닥(ShoeDoc)'의 시작이었습니다.

'슈닥'은 현대인들이 바쁜 일상 속에서도 신발 수선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기 위해 탄생했습니다. 군에서 얻은 문제 해결 능력과 기획력이 '슈닥' 브랜드 설립 과정에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시장 조사와 프로토타입 개발에 많은 시간을 투자했으나, 땀 흘려 노력한 과정과는 달리 세상은 항상 햇살과 무지개로 가득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떠올린 생각을 실행할 수 없는 능력적 한계에 부딪혀 난관에 봉착하거나 실패를 겪는 일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에 봉착하더라도 군에서 배운 팀워크와 리더십을 바탕으로 이겨낼 수 있었고, 직장 동료들과 함께 아이디어를 현실로 구현하는 과정에서도 역할 분담과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군에서의 경험은 '슈닥'을 성공적으로 론칭하고 운영하는 데 중요한 기초가 되었으며, 실패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앞으로 나아가는 결연함과 성공을 향한 불타는 도전정신을 가슴속에 새겨둘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특전정신으로 무장한 불굴의 창업가, '안 되면 되게 하라'

창업 초기에는 자금, 인력 부족 등의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또한, 자체 개발이 필요한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 비용을 마련하는 것이 어려웠고, 이에 따라 기술적인 문제가 함께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새로운 서비스를 시장에 알리고 고객을 확보하는 것 역시 큰 난제였습니다. 초기 고객들은 슈닥의 서비스를 인정해 주지 않았고, 수선 작업의 품질과 속도에 대한 불신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노력은 청년 정책 자금 지원 심사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쟁취하고자 직접 전단지를 돌리고, 마케팅 전략을 세우며, 플랫폼 개발에 참여하는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표 달성만을 위해 달렸습니다. 영업 활동을 통해 고객을 확보하고, 고객 상담과 배달까지 모두 맡았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역량을 쌓고, 고객의 니즈를 직접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플랫폼 회사를 운영하면서 여러 분야의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몸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는 플랫폼 비즈니스가 얼마나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고 있어야 하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특전사 출신으로서 '안 되면 되게 하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매일 스스로를 격려하며 회사를 성장시켜 나갔습니다. 고난과 역경에 처할 때마다 군인정신으로 무장하였고 포기하지 않았으며 군인으로서 배운 인내와 끈기로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갔습니다. 일정한 시간을 투자해 마케팅 전략을 개선하고, 직접 고객과 대화를 나누어 신뢰를 쌓으며 서비스를 개선해 나갔습니다.

이러한 전체적인 경험은 마치 카멜레온이 색을 변화시키듯이, 각종 직업과 업무에 맞춰 저 자신의 색을 조정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뼈를 깎는 노력 덕분에인지 고객들이 저희의 노력과 서비스 품질을 인정해 주기 시작했고, 슈닥은 점차 성장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저는 수선 서비스의 범위를 확대하여 다양한 신발, 운동화, 등산화, 골프화까지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와 노력이 슈닥이라는 브랜드를 성장으로 인도하게 되었고, 이는 군인 출신 청년 창업가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군 복무를 통해 배운 강인한 정신력과 문제 해결 능력이 특히 초기 자금과 인력이 부족했던 창업 과정에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런 경험들은 저에게 끊임없는 도전정신을 불어넣고, 제대 군인인 저에 대한 한계를 정해놓는 사람들의 부정적 인식을 극복하는데 좋은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역경은 나를 발전시키는 요소 중 하나일 뿐이다

슈타이 처음 성장의 길로 접어들었을 때, 저는 군인으로서의 훈련과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을 안정화하고 성장시키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초기의 위기를 극복하고 사업이 안정화된 후, 우리는 플랫폼의 인지도를 높이고 고객 만족도를 극대화하며 사업을 성장시킬 기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초기에는 주로 구두와 운동화의 수선 서비스에 중점을 두었지만, 시장의 요구와 고객의 피드백을 반영하여 추가적인 부가 서비스를 개발하고 도입했습니다. 또한, 신발의 청결 유지를 위한 세탁, 세척, 건조 등 추가 서비스나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키는 기능들을 구축해 플랫폼의 가치를 높였으며, 고객층을 확대하고 서비스 범위를 확장하는 등 다양한 시도와 도전을 통해 브랜드 성장에 몰두했습니다.

성장한 슈타이의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다각화된 전략을 구축하며 끊임없이 노력한 덕분에 현재 슈타이는 단순한 수선 플랫폼을 넘어서, 종합적인 신발 관리 서비스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더 넓은 시장에서의 성장과 기회를 열어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고객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각광 받는 분야인 AI를 접목시켜 수선항목 선택을 어려워하는 고객들에게 사진 한 장으로 수선받을 부분과 견적까지 알려주는 더 빠르고 간편한 앱 프로그램 개발에 착수하는 등 나날이 발전하고 성장하는 기업을 만들고자 하루라도 게으른 법 없이 매일을 착실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의 성패는 마음가짐과 행동에 달려 있다

창업 과정이 순탄하기만 했다고는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었고 매 순간이 실패와 좌절의 연속이었습니다. 많은 것을 경험해 보니 어느 순간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태도와 자세, 그리고 사고방식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며, 문제 해결에 대한 열린 마음으로 접근했습니다. 자원 부족, 기술적 난관, 그리고 시장의 변화와 같은 여러 도전에 직면하면서도, 낙심하지 않고 극복해 나갔습니다. 군에서 배운 임전무퇴의 기상, 필승의 신념 등의 정신력이 제 버팀목이 되어 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제가 민간인 신분



으로 창업을 시작했다면 성공을 장담하지 못할 정도로 제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주변인들이 제가 전역 후 준비하는 창업의 성공은 불가능이라고 손가락질할 때, 군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한 내가 이런 것도 못할소냐 하며 도전정신과 열정을 더욱 불태웠습니다. 창업이라는 심오한 분야에 처음 도전하는 저였기에 많은 실패를 겪고 위기도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늘 그랬듯 포기하지 않았고, 그 결과 현재의 윤택한 삶을 일궈 낼 수 있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꿈과 성공이란 도전하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여나 실패를 겪게 되더라도 그것은 여러분을 한 층 더 성장시키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역사적인 위인들도 한 번에 성공하는 법은 없었습니다. 위인과 실패자는 결국 그 실패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군 동료, 후배들도 군에서 배운 단단한 정신력과 성실함, 지혜를 토대로 빛나는 성공을 이루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군인 출신으로서의 근면과 인내, 그리고 사업가로서의 열정과 자부심을 통해 동료와 후배들에게 진정한 동기부여와 교훈이 전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 삶의 흔적이자 전부인 어떤 상황에서든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며 끈질기게 나아가는 자세를 배우고자 하는 많은 후배들과 동료들에게 긍정적인 영감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65

※ 본 수기는 개인의 경험으로 정부의 정책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부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2025

제대군인 취·창업 성공수기 공모전

공모주제
취·창업을 위해 노력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이야기

공모기간 및 자격

공모기간 2025. 5. 19.(월) ~ 7. 18.(금)

응모자격 중·장기복무제대군인과 가족, 의무복무제대군인*, 고용기업 관계자(기 수상자 제외)

* 경상이자, 취업및종특기병, 모범장병 중 국가보훈부 지원대상자

응모방법 E-mail 접수(vnet@korea.kr)

원고분량 A4 용지 5매 내외

* 서식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 '알림소식-보훈부소식-공지사항'에 게시

시상내역

최우수상 1명 200만원(국가보훈부장관상)

우수상 4명 각 100만원(국가보훈부장관상)

장려상 8명 각 50만원(국가보훈부장관상)

* 그 외 응모자(수상자 제외) 전원 모바일 상품권(1만원 상당) 지급

심사기준
감동 및 진실성, 내용구성의 우수성 등

수상작 발표 : 2025. 8. 22.(금)
국가보훈부 누리집(www.mpva.go.kr) 게시

문의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일자리과(044-202-5736)





정부가 만드는 일자리, 지금 잡아라!

정부 '직접일자리' 한눈에 보기

정부 직접일자리란?

정부나 공공기관이 직접 사람을 뽑아 일정 기간 동안 일자리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일할 곳이 마땅치 않은 사람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마련해 주고, 다시 민간 일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디딤돌 역할을 한다.

신청 자격

연령 실업 상태인 만 18세 이상(청년·신중년·노인 일자리별 세부기준 상이해 사업별로 확인 필요)

거주지 모집기관이 속한 시·군·구 주민등록 보유자

소득·재산 가구 소득이 2025년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재산 3~4억 원 내외(지자체별 변동)

취업취약계층 우선 기초생활수급·차상위, 장애인, 한부모, 장기실직자, 보호대상자 등

Tip 최근 3년 내 공공근로 2회 이상 참여 또는 중도포기 경력자는 감점·제한, 직장 근무 중이거나 실업급여 수급자는 참여 불가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기준 중위소득(70%)	1,674,409	2,752,861	3,517,747	4,268,441	4,975,734
가구원수	6인	7인	8인	9인	10인
기준 중위소득(70%)	5,645,364	6,291,900	6,938,436	7,584,972	8,231,508

급여

시급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 교통·간식비 5,000원/일(다수 지자체 고시)

65세 미만 주 30시간(1일 6시간) → 월 약 130만 원

65세 이상 주 15시간(1일 3시간) → 월 약 65만 원

청년·전문인턴형 월 160만 원 내외 별도 책정

Tip 4대 보험 의무 가입·세전 기준, 교통·간식비는 '출·퇴근 1일 2회 출석' 조건

구분	근무시간	월급(세전)	비고
65세 미만	주 30시간	약 130만 원	시급 10,030원 기준
65세 이상	주 15시간	약 65만 원	교통·간식비 별도
청년 인턴형	주 35시간 이상	최대 160만 원	부처별 상이



신청 방법

- 고용24(www.work24.go.kr) 접속 → 고객센터 → 공지사항에서 '25년 정부지원 직접일자리 통합공고' 검색
-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공공근로·지역공동체형) 직접 방문 접수
- 필요 서류: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신분증, 소득·재산 증빙, 구직등록확인증 등

Tip 제출 서류·접수처는 지자체 공고로 최종 확인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접수 후 절차

자격심사(소득·재산·취약계층 가점) → 면접 또는 서류전형 → 선발 통보 → 근로계약·배치 → 4대 보험 가입 후 근무

Tip 근무 평정이 다음 차수 재참여 가산점으로 반영, 단시간 근로자(주 15시간 미만 등)는 국민연금·건강보험 미가입 가능하며, 고용·산재보험은 기본 적용

주의 사항

- 중복 참여 금지: 자활근로·청년일자리·노인일자리 등 다른 재정지원 일자리와 동시에 참여 불가
- 사업 기간(대부분 6~12개월) 종료 시 계약 자동 만료(퇴직금 없음)
- 근로태만·무단결근 시 즉시 탈락, 차기 지원 시 감점
- 소득·재산·가구변동 발생 시 자격 상실 가능



- ✓ 내 소득·재산 → 중위소득 70%·3~4억 원 이하인지 먼저 확인
- ✓ 워크넷 알림 설정으로 추가모집 공고 실시간 수신
- ✓ 계약서에 시급·근로시간·사업기간 명시됐는지 필히 점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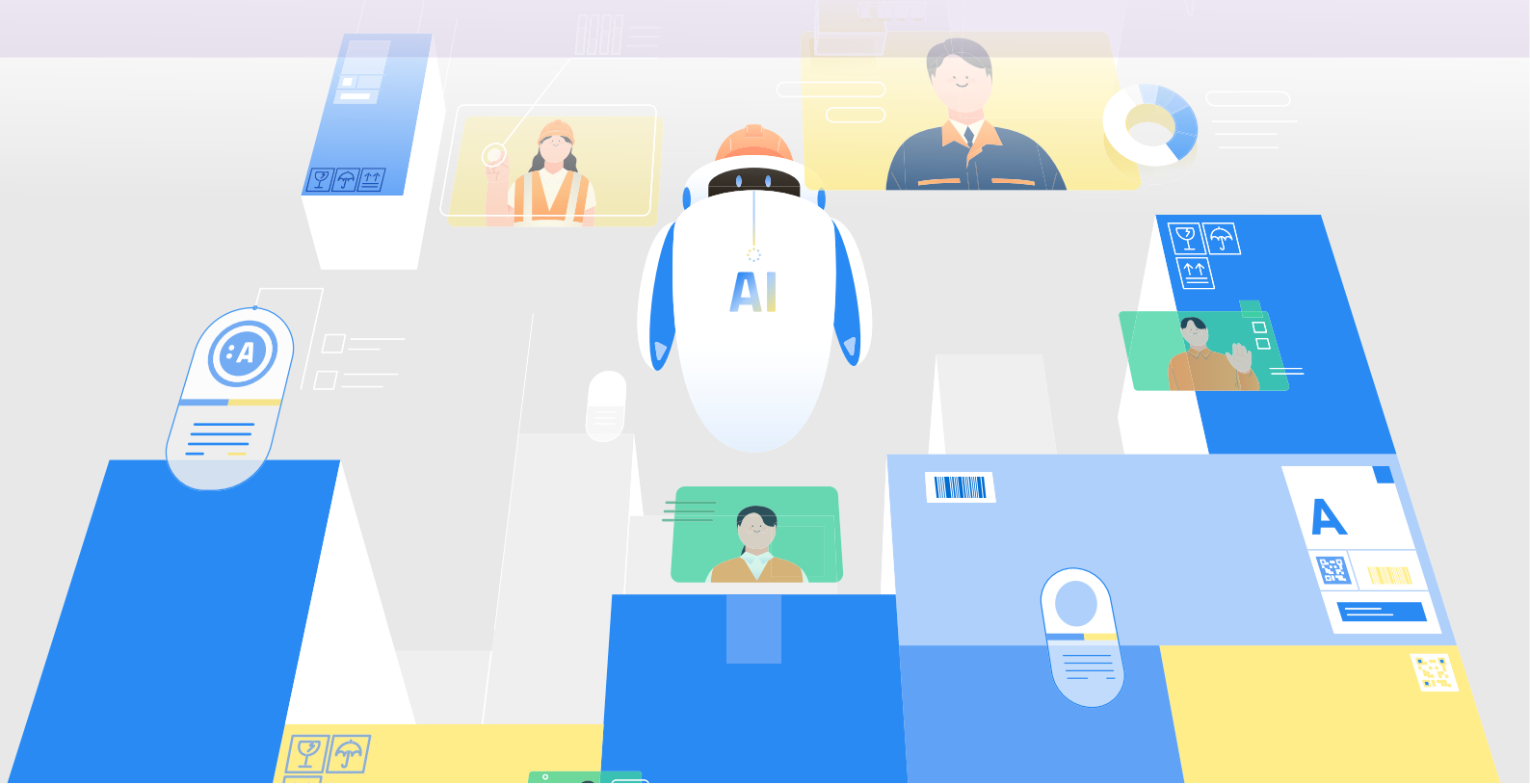
Tip 참여 중 '내일배움카드'로 직무훈련을 병행하면 최대 70% 훈련비를 추가 지원받아 민간취업 전환에 유리(직접일자리와는 별도 정책)

미래를 여는 힘,
그린+디지털
신(新) 일자리 지도

글 편집실

차세대 유망 직업 10가지 탐구

기후 위기와 기술 혁신이 전 세계 산업 지형을 빠르게 바꾸고 있다. 탄소중립, 초거대 AI, 스마트팩토리 등 새로운 키워드가 우리 삶에 스며드는 가운데, 그 안에서 새롭게 등장한 직업들도 주목받고 있다. 이른바 ‘그린+디지털 신(新) 일자리’다. 앞으로의 10년을 주도할 유망 직업 지도를 살펴본다.



산업 지도가 바뀌고 있다

지금 전 세계는 기술 혁신과 기후 변화 대응이라는 두 가지 거대한 흐름 속에서 산업과 직업 구조의 재편을 겪고 있다. 세계 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은 『2025 미래 일자리 보고서』를 통해 향후 5년간 1억 7천만 개 이상의 신규 일자리가 생길 것이라 전망했다. 이 중 상당수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재생에너지, 순환경제 등 디지털 기술과 친환경 산업을 중심으로 한 신직업이다. 이러한 변화는 단지 기술적 발전에 그치지 않는다. 산업의 기반이 재정의되고 기업의 운영 방식과 직무 구조가 달라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가 빠르게 등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제조와 건설 분야에서는 현실을 가상공간에 구현하는 ‘디지털트윈 엔지니어’가 주목받고 있으며, 물류 산업에서는 자동화와 빅데이터 기반의 ‘스마트물류 전문가’가 새롭게 부상하고 있다. 디지털 전환과 녹색 산업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그린+디지털 신(新) 직업’은 단지 유행이 아니라 산업과 고용의 구조적 전환을 이끄는 핵심 동력이 되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변화의 흐름을 읽고, 그 흐름 속에서 나의 가능성을 찾아가는 전략이다.

디지털 혁신이 만든 새로운 일자리

세계경제포럼에 따르면, 디지털 기술과 관련된 직종은 향후 5년간 고용 증가율이 가장 높은 분야로 꼽힌다. 특히 인공지능, 클라우드 컴퓨팅, 데이터 분석 분야는 기업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꾸준한 수요가 예상된다. AI 및 머신러닝 전문가는 생성형 AI 기술의 확산에 따라 챗봇, 음성인식, 예측 시스템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다. GPT 기반 시스템에 특화된 직무가 분화되면서 인공지능 역량은 핵심 경쟁력이 되고 있다. 데이터 분석가 /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제해 시각화한 뒤, 조직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세계경제포럼은 “기업의 80% 이상이 데이터 분석 인력을 필요로 한다”라고 밝혔다. 디지털트윈 설계자는 도시나 설비 등 현실 구조를 가상공간에 구현하는 기술 전문가다. 도시계획, 항만 운영, 제조 공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효율과 예측력을 높이는 핵심 직무로 부상하고 있다. 사이버보안 전문가는 개인정보 보호, 산업 시스템 보안, 클라우드 보안 등 디지털 전환과 함께 늘어나는 위협에 대응하는 필수 인력이다. 정보보안기사, CISSP 등 전문 자격이 진입에 도움이 된다.

디지털 기반 유망 직업 5선

직업명	설명	교육 및 추천 자격증
AI 개발자	머신러닝·딥러닝 모델 설계 및 튜닝	Python, AI 실무 교육, ADsP, AI-900 등 자격증
빅데이터 분석가	데이터 수집·분석해 인사이트 도출	데이터분석 준전문가(ADsP)
디지털트윈 엔지니어	가상공간에 현실 재현해 설비 최적화	BIM, 디지털트윈 특화 교육, 건설·설비·전기 분야 경력
스마트물류 전문가	무인창고, 드론 배송, 자동화 설비 등 물류 시스템 설계·운영	물류관리사, IoT·자동화 시스템 교육
시스템반도체 엔지니어	SoC(System on Chip) 기반 반도체 설계 및 테스트 업무 담당	전기·전자 전공 또는 반도체 장비 운용 경험자

클라우드 아키텍트는 기업 IT 인프라를 클라우드 환경에 맞춰 설계하고 관리한다. DevOps·MLOps 역량과 AWS·Azure 등 자격증 보유자가 우대되며, 기업 내부 디지털 전환의 중추를 담당한다. 스마트물류 전문가는 무인창고, 드론 배송, 자동화 물류 설비 등을 설계·운영하며 유통·무역·택배 산업의 디지털화를 이끄는 역할을 한다. 물류관리사와 자동화 시스템 교육 이수자가 유리하다. 시스템반도체 엔지니어는 SoC(System on Chip) 설계 및 테스트를 담당하는 고급 기술직이다. 반도체 장비기업의 수요가 높으며, 전기·전자 전공자나 장비 운용 경험자가 진입에 유리하다.



환경 위기가 창출한 그린 일자리

기후 위기는 더 이상 환경문제만이 아니다. 산업과 고용, 기술 전환까지 모든 분야에 변화를 일으키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는 그린 일자리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탄소배출량 감축 컨설턴트는 온실가스 배출을 정량화하고, 감축 목표와 이행계획을 수립하는 전문가다. 탄소회계 보고서를 작성하며, CBAM(탄소국경조정제도), RE100, K-ESG 등 대응 전략 수립에 참여한다.

수소 인프라 엔지니어는 수소의 생산·저장·운송 인프라를 설계하고 유지·관리하는 기술직이다. 수소버스, 수소도시 등 시범사업 확대에 따라 고압가스·기계설비 기술자를 중심으로 수요가 증가 중이다.

에너지 진단 컨설턴트는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시설의 전력 사용을 분석하고 효율 개선을 제안한다. 이는 정부의 에너지 효율화 정책과도 맞닿아 있으며, 실무형 전략가로 평가된다.

기후위기 대응 전략가는 CBAM, ESG 평가, 환경정보공개제도(CDP) 등 글로벌 기준에 맞춰 수출기업의 기후전략을 수립한다. 국제 보고체계 이해도와 조직 내 컨설팅 역량이 핵심이다.

자원순환 제품설계자는 플라스틱, 포장재 등 제품을 처음 설계할 때부터 재사용·재활용이 가능하도록 구조를 설계한다. 2024년 자원순환기본법 개정으로 관련 기술자의 수요도 늘고 있다.



그린 일자리 유망 직업 5선

직업명	설명	수요 배경
탄소배출량 감축 컨설턴트	기업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관리	탄소배출권 제도 확대, ESG 경영 도입, CBAM 대응 수요 증가
수소 인프라 엔지니어	수소 생산·저장·운송 인프라 구축	수소도시 시범사업 확대, 고압가스·기계설비 자격
에너지 진단 컨설턴트	공공·산업시설 에너지 사용 최적화 분석, 효율 개선 방안 제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기반, 국가공인 에너지관리기사
기후위기 대응 전략가	수출기업의 CBAM, ESG 등 글로벌 규제 대응 전략 수립	CBAM, ESG 평가, 국제 보고체계 이해
자원순환 제품설계자	제품 생산 초기 단계에서부터 재활용·재사용이 용이하도록 구조 설계	자원순환기본법 개정, 플라스틱 사용 규제

신직업 진입을 위한 실용 전략

신직업은 이제 특정 전공자나 전문가만의 영역이 아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다양한 국민을 대상으로 디지털·그린 직무 진

입을 위한 맞춤형 훈련과 자격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정보 접근성과 실천력이다.



어디서 어떻게 배울까?

1 K-디지털 트레이닝(고용노동부 지원)

- 청년, 비전공자, 경력 전환 희망자 등 누구나 참여 가능
- AI, 빅데이터, 소프트웨어 개발, 핀테크, 스마트제조 등 다양한 디지털·신기술 분야 실무 중심 교육
- 프로젝트 중심 실습, 기업 맞춤형 커리큘럼 제공
-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후 신청, 훈련비 전액 지원 및 훈련장려금 지급



2 디지털 원격훈련 아카이브(한국산업인력공단)

- 중소기업 근로자 및 일반인 대상, 구독형 온라인 직무교육 플랫폼
- 디지털·그린 직무 콘텐츠 자유 선택, 숏폼/실시간 웨비나 제공
- 20개 선정 훈련기관(멀티캠퍼스, 휴넷 등)에서 운영
- 15시간 이상 수강 시 1인당 14만 원 상당 훈련비 지원



3 디지털훈련센터(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장애인 및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수준별 IT 훈련과정(기초~고급)
- 소프트웨어 개발, 빅데이터, 소프트웨어 테스팅 등
- 교육비, 교재, 실습재료 무료, 일부 수당 및 교통비, 식비 지원



4 그린 직무 특화 과정(예: 그린홈 컨설턴트)

- 시니어 등 특정 계층을 위한 그린 직무(예: 에너지 절감, 친환경 컨설팅) 맞춤형 과정
- 직무훈련과 인턴십 연계, 실무 중심 교육



변화의 속도는 빨라지고 있다. 기술 발전은 기다려주지 않으며, 기후위기 대응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이제 우리 모두가 각자의 직업 지도를 새롭게 그려야 할 시점이다. 변화는 두렵지만,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기회가 된다. 그린과 디지털이라는 새로운 지형 위에서 자신만의 좌표를 찾아보자. 그 곳이 바로 새로운 여정의 시작점이 될 것이다.

번아웃, 나를 구하는 현실 셀프케어

에너지가 바닥난 나를 돌보는 방법

글 정지하

Q 요즘 자주 지치고, 무기력해져요.
왜 그럴까요?

A 몸은 멀쩡한데 의욕이 바닥나고, 별일 없는데도 무기력함이 몸을 감싸는 느낌이 들 때가 있지요. 이걸 게으르거나 낙약해서가 아닙니다. 마음이 “나 지쳤어”라고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 바로 ‘번아웃(burnout)’일 수 있어요.
세계보건기구(WHO)는 번아웃을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만성 직장 스트레스’로 정의합니다. 신체적, 정신적으로 모든 에너지가 방전된 느낌을 받거나, 일이나 사람에 대해 무관심한 태도로 변했거나, 업무에 대한 자신감과 성취감이 떨어지고 실수가 늘어난다면 번아웃이 아닌지 의심해 볼 수 있어요.
혹시 요즘의 내가 이 상태와 닮아 있진 않은가요? 번아웃 체크리스트로 점검해 보세요.

Q 작가님도 번아웃을 겪어보셨어요?
어떻게 이겨 내셨나요?

A 저도 일하면서 크게 번아웃을 3번 겪었어요. 공통점은 늘 같았어요. 업무량이 많은 날이 장기화되고, 심리적인 압박까지 겹쳤을 때였습니다. 첫 번째 겪었던 번아웃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단순히 피곤하다기보다, 정신적으로 완전히 무기력해진 상태였어요. 지각하기 직전까지 침대에 누워있다가, 빠르게 씻고 택시를 타고 아슬아슬하게 출근했죠. 해야 할 일은 쌓여 있고, 마감은 다가오는데, 몸이 움직이지 않으니 자책하게 되고 우울로까지 이어졌죠. 몇 주 동안이나 이 상태였어요. 어느 날, 친구가 말해줬어요. “너무 지쳐서 그런 거 아닐까?” 그 말이 저를 멈춰 세웠습니다. 그리고 제 상태를 처음으로 제대로 돌아보게 되었어요.
그다음 날 저는 3일 연차를 냈습니다. 특별한 계획 없이 그냥 마음이 원하는 대로 쉬었어요. 누워 있고, 생각 없이 먹고, 자고. 누가 보면 신생아처럼 하루를 보냈죠. 하하! 그런데 그렇게 지내다 보니, 조금씩 내 안의 에너지가 다시 차오르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생각해 보면 단순한 원리예요. 차에 기름이 떨어지면 주유를 하고, 핸드폰 배터리가 닳으면 충전을 하듯, 사람도 마찬가지로 ‘에너지를 채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쉬기, 잘 먹기, 폭 자기”. 기본 중의 기본을 회복하며 번아웃에서 빠져 나올 수 있었어요.

번아웃 체크리스트

- ☑ 일을 마치거나 퇴근할 때 완전히 지쳐 있다.
- ☑ 아침에 일어나 출근할 생각을 하면 피곤하다.
- ☑ 회사에서 항상 긴장을 느낀다.
- ☑ 업무를 수행할 때 무기력하고 싫증을 느낀다.
- ☑ 어떤 일을 하는 데 소극적이고 방어적이다.
- ☑ 자신감이 떨어지고 자주 실수할 것만 같다.
- ☑ 최근 짜증, 불안이 많아지고 여유가 없다.

* 위의 체크리스트 중 3개 이상 해당되면 번아웃 증후군을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Q 어떻게 하면 내 에너지가 고갈되었다는 걸
쉽게 알 수 있나요?

A 핸드폰 배터리는 자주 확인하잖아요. 50% 정도만 남아도 불안해서 충전기를 찾곤 하죠. 그런데 내 에너지는 몇 퍼센트 남았는지, 하루에 한 번이라도 확인해 보신 적 있나요? 저는 하루에 몇 번씩 스스로에게 물어요. “지금 나는 몇 프로(%)쯤이지?” 머리가 무겁진 않은지, 눈이 흐릿하진 않은지, 감정이 바닥에 깔려있진 않은지. 이 짧은 점검 하나가 번아웃을 미리 알아차리는 열쇠가 되어줍니다. 에너지는 고갈되고 나서야 느끼는 게 아니라, ‘자주 들여다보는 습관’으로 예방할 수 있어요.

Q 에너지를 회복하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A 첫 번째, 쉬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이 단계를 충분히 가지지 않으면, 금방 다시 에너지가 고갈되어 더 깊은 번아웃에 빠질 수 있어요. 지금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실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고, 건강한 음식을 먹고, 폭 자는 것. 이 기본부터 회복해야 해요. “실 시간이 없어요”라고 말하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번아웃을 방치하면, 결국 원하지 않게 더 오래 쉬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제때 잘 쉬는 것 역시 ‘업무 능력’입니다. 그러니, ‘실 것을 선택’하는 용기를 내 보세요.
두 번째, ‘해야 하는 것’보다 ‘하고 싶은 걸’ 하세요. 저는 그 시기에 퍼즐을 맞추거나, 가벼운 책을 읽고, 산책을 하고, 미술관에 갔어요. 늘 해보고 싶었지만 미뤘던 것들이죠. 신기하게도 작은 기쁨들이 쌓이니 무기력이 가고 생기가 돌아오더라고요.
세 번째, ‘단기 목표’로 하루를 설계하세요. 예를 들어, ‘일주일 뒤까지 기획서 완성하기’가 아니라 ‘오늘 자료 조사하고, 개요 짜기’처럼 하루 안에 할 수 있는 작은 단위로 계획을 쪼개보세요. 이렇게 하면 부담감은 줄고, 성취감으로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어요.

Q 시간도 잘 쓰고 나도 잘 돌보고 싶어요.
꼭 기억할 한마디가 있다면요?

A 하루에 3번 양치하죠? 그 짧은 순간, 거울 앞에 선 시간에 물어보세요. “지금 내 상태는 어떤가?” 내 얼굴 표정을 먼저 보고, 내 마음, 에너지 상태를 점검해 보는 거예요. 하루 종일 우리는 상사의 눈치, 동료와의 대화, 핸드폰 속 정보에 집중하느라 정작 ‘나’를 들여다보는 시간은 거의 없어요. 하지만 양치 시간 3분만큼은 나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내 기분, 피로, 욕구를 체크하고, 나에게도 충전기를 꽂아주는 시간을 자주 가지세요. 그게 바로 셀프 케어의 시작입니다. ☎

글쓴이 소개 **정지하** | [시간을 선택하는 기술, 블랙식스] 저자
유튜브 채널 ‘룩말’ [시간관리는 룩말이와 함께] 운영
EBS 귀하신 몸 <도파민 중독> 편 시간관리 전문가 패널 출연, 배민아카데미, 삼성화재 기업/기관 다수 강의 등

광복 80주년 기념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기출문제로 보는
역사와 보존 지식

대한광복회

글 편집실

[정답] ②번

이 문제는 제시문 속 단체가 어떤 독립운동 조직인지를 묻는 사료-조직 연결 문제입니다.

1915년 대구에서 결성, 박상진·김한중 주도, 군자금 모집과 친일파 처단 등의 활동은 대한광복회의 전형적 특징입니다. 대한광복회는 의병계열과 계몽운동계가 연합한 국내 비밀결사로 공화정 수립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②번 보기는 결성 시기, 인물, 활동 내용이 모두 정확히 일치합니다. 다른 선택지는 활동 시기나 인물, 목표가 불일치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②번입니다. 이와 관련한 역사 지식을 한번 살펴볼까요?

의병의 뒤를 이은 새로운 흐름

1910년 일제가 대한제국을 강제로 병합하면서 무장 의병 활동은 점차 약화되었고, 독립운동의 중심은 해외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도 나라의 주권을 되찾기 위한 비밀 결사 활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1915년 7월 대구에서는 박상진 선생과 김한중 선생 등 독립운동가들이 모여 대한광복회를 조직하였습니다. 이 단체는 1913년 경북 풍기에서 조직된 광복단과 1915년 대구에서 결성된 조선국권회복단이 중심이 되어 통합 결성된 조직입니다. 국권 회복과 공화정 실현을 동시에 목표로 삼았으며, 복벽주의(왕정복고)와 공화주의(공화정 수립) 이념이 공존하는 특징을 지녔습니다.

광복회는 국내 독립운동 세력 간의 이념적 차이를 뛰어넘어 연대를 실현한 모범적인 조직으로, 대구를 거점으로 충청, 경상, 황해, 평안은 물론 만주 길림 등지까지 지부를 확장하며 전국적 조직망을 구축하였습니다.

제66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심화) 38번 문항

38. (가)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판 결 문

피고인: 박상진, 김한중

주 문: 피고 박상진, 김한중을 사형에 처한다.

이 유

피고 박상진, 김한중은 한일 병합에 불평을 가지고 구한국의 국권 회복을 명분으로 [가] 을/를 조직하고 국권 회복을 위한 자금 조달을 위해 조선 각도의 자산가에게 공갈로 돈을 받아내기로 하고 …… 채기중 등을 교사하여 장승원의 집에 침입하여 자금을 강취하고 살해하도록 한 죄가 인정되므로 위와 같이 판결한다.

- ① 중일 전쟁 발발 직후에 결성되었다.
- ② 군대식 조직을 갖춘 비밀 결사였다.
- ③ 파리 강화 회의에 대표를 파견하였다.
- ④ 일제가 꾸며낸 105인 사건으로 와해되었다.
- ⑤ 만민 공동회를 열어 열강의 이권 침탈을 비판하였다.



대한광복회를 결성하고 초대 총사령관을 지낸 최초의 법조인 출신 독립운동가 박상진 선생

총사령 박상진 선생과 실천적 지도자들

광복회의 활동은 단순한 선언에 머물지 않고, 실질적인 무장 독립운동 준비로 이어졌습니다. 회원들은 군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친일 부호들에게 의연금을 요구하거나 강제로 징수하였으며, 때로는 처단을 감행하기도 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친일 부호 장승원 처단 사건 등이 있었습니다.

조직의 총사령이었던 박상진 선생은 군대식 조직 체계를 갖추고, 독립군 양성과 무장 투쟁을 준비하며 ‘국민 국가 수립’이라는 목표를 실현하고자 하였습니다. 김한중 선생은 충청 지역 지부장을 맡아 조직의 확산에 크게 기여하였고, 채기중(경상도 책임자), 이병호(전라도 책임자), 우재룡(지휘장) 선생 등 여러 지도자들이 각 지역에서 활약하였습니다.

이처럼 광복회는 국내 비밀결사 중에서도 무장투쟁과 공화주의를 동시에 지향하며 실천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을 전개한 조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끝까지 꺾이지 않은 신념

1918년 1월, 천안 헌병대는 관내 부호들이 받은 ‘불온 편지’의 발신지가 주로 경성이라는 사실에 주목하였습니다. 경성인천 일대를 오가던 장두한 선생께서 먼저 체포되자, 이를 실마리로 박상진 총사령을 비롯해 채기중 선생, 김한중 선생 등 광복회 핵심 인사 400여 분이 연이어 검거되었습니다.

이들 세 분께서는 3년에 걸친 재판 끝에 1921년 8월 사형을 언도받으셨고, 박상진 선생과 김한중 선생은 대구형무소에서, 채기중 선생을 비롯한 동지들은 서대문형무소에서 순국하셨습니다. 조직은 큰 타격을 입었으나, 광복회의 정신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일부 회원들은 만주로 건너가 항일 무장투쟁의 불씨를 이어갔으며, 그 가운데 김좌진 장군께서는 북로군정서를 이끌고 1920년 청산리대첩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의병과 계몽운동 세력이 힘을 합쳐 대한광복회를 결성한 대구 달성공원의 현재 모습



국가등록문화유산에 등재된 박상진 의사 옥중 편지와 상덕태상회 청구서 (출처: 국가유산청)



1920년 박상진 의사의 형판결문
(출처: 고현 박상진 의사 추모 사업회)

이름으로 남은 정신, 정신으로 이어진 투쟁

광복회는 한 시대의 단체를 넘어 1920년대 의열단, 1930년대 한인애국단·한국독립당·한국광복군 등 무장 독립운동 단체와 인물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단체명에 담긴 ‘광복(光復)’이라는 두 글자는 “스스로 조국의 빛을 되찾겠다”는 결의를 상징합니다.

오늘날 학계에서는 광복회를 “국내 공화주의 계열 독립운동의 원형”으로 평가하며, 이들의 헌신과 희생을 항일 무장투쟁사의 중요한 전기로 기리고 있습니다. ㉞

전자발찌 착용자를 24시간 밀착 감시하는 범죄 예방의 최전선

무도실무관

글 편집실

전자감독 제도와 무도실무관의 등장

영화 <무도실무관>은 아버지가 운영하는 치킨집의 배달 일을 하던 무술 유단자 이정도(김우빈 분)가 우연히 범죄자에게 공격받은 무도실무관을 구하게 되면서 이야기가 시작된다. 이 사건을 계기로 그는 보호관찰관 김선민(김성균 분)의 제안을 받아들여, 전자발찌를 찬 전자감독 대상자들을 밀착 감시하며 범죄를 예방하는 무도실무관으로 일하게 된다. 영화는 생소한 무도실무관의 현실을 액션과 드라마로 풀어낸다.

극 중 묘사에서 알 수 있듯 무도실무관은 일반 시민에게는 아직 낯선 존재지만, 실제로는 우리 사회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재범을 막고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범죄 예방 인력의 핵심이다. 특히 전자감독 대상자의 동선을 상시 추적하고 위반 사항 발생 시 현장에 출동해 긴급 대응하는 임무를 맡는다. 그러나 영화보다 더 긴박하고 복잡한 현실 속에서 이들이 감당해야 하는 부담은 훨씬 크다.

전자발찌 제도는 성폭력·살인·강도 등 중범죄를 저지른 특정 전과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법원에서 부착 명령이 내려지면, 퇴소 후 일정 기간 동안 전자장치를 착용한 채 생활해야 하며, 위치정보는 24시간 추적된다. 그러나 장치만으로는 위험을 예방할 수 없다. 실제 사건이 발생한 후에서야 추적되는 사례도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해졌고, 그렇게 2013년 무도실무관 제도가 처음 시작되었다. 당시 채용 인원은 30명 남짓이었지만, 제도의 필요성이 입증되면서 현재는 전국 57개 보호관찰소에 약 170명이 배치되어 활동하고 있다.



사진 출처: 넷플릭스 영화 <무도실무관>

넷플릭스 영화 <무도실무관>이 공개된 이후, 영화 속 직업에 대한 대중의 호기심이 커졌다. 배우 김우빈이 맡은 주인공 이정도는 전자발찌를 찬 대상자를 밀착 감시하며 위험 상황에 출동하는 직업인 ‘무도실무관’으로 활약하며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그러나 현실 속 무도실무관은 드라마보다 더 숨 가쁜 일정을 소화하며, 범죄 예방의 최전선에서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감시의 눈길 너머, 그들이 서 있는 자리를 들여다본다.



이들은 모두 격투 유단자이자 출동형 실무 인력이다. 전자발찌를 착용한 대상자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긴급 상황 발생 시 현장에 출동해 대상자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며, 때로는 경찰과의 공조 속에 범죄를 미연에 방지한다.

2024년 8월 기준 전자감독 대상자는 약 4,270명, 무도실무관 1인이 평균 25명을 담당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각자의 생애를 짊어진 사람들과 그들을 감시하는 또 다른 사람들. 그 긴장된 균형 속에서 무도실무관은 무성의 방패가 된다.

영화보다 바쁜 하루, 무도실무관의 현장

무도실무관의 하루는 전날 밤 경보 기록을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이동 경로에서 이상 징후가 있었는지, 출입금지 구역 접근 시도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담당 보호관찰관과 함께 하루의 대응 전략을 세운다. 이후 무도실무관은 차량을 이용해 전자감독 대상자의 거주지와 주요 동선을 순찰하며, 전자장치의 훼손 여부, 충전 상태, 음주 여부 등을 점검한다.

일상적인 점검만으로 하루가 끝나지 않는다. 전자발찌 경보가 울리면 상황은 곧바로 긴급 단계로 전환된다. 무도실무관은 즉시 현장에 출동해 대상자의 소재와 안전 여부를 파악하고, 필요 시 경찰과 함께 대상자 검거 및 상황 조치에 나선다. 경보가 허위인지, 실제 위반 행위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일도 이들의 몫이다. 경보가 없는 날조차도 긴장을 놓을 수 없다. 대상자 중 일부는 과거 흉악범죄 전력이 있으며, 위험 상황에 돌발 행동을 보이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수시로 발생하는 돌발 상황, 야간·주말을 가리지 않는 3교대 근무, 단독 출동에 따른 긴장감까지, 현실 속 무도실무관의 하루는 영화보다 훨씬 바쁘고 고단하다.



무도실무관의 범죄 예방 활동

	전자감독(전자발찌) 대상자의 이동 경로 분석 및 현장 확인	전자발찌를 착용한 대상자의 위치와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이상 징후가 있을 경우 직접 현장에 나가 상황을 확인한다.
	출입제한구역 등 순찰 활동 보조	대상자가 접근해서는 안 되는 출입제한구역, 보호시설, 학교 주변 등에서 순찰 활동을 실시하며, 보호관찰관의 현장 업무를 보조한다.
	상시 출동 대기 및 경보 발생 시 현장 출동	24시간 상시 출동 대기 상태를 유지하며, 전자감독 시스템에서 경보가 발생하면 즉시 현장에 출동해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전자장치 훼손 및 소재 불명자 검거 보조	전자발찌 훼손, 장치 분리, 대상자 소재 불명 등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현장에 출동하여 보호관찰관과 함께 검거 및 조치 업무를 지원한다.
	긴급상황 발생 시 업무 지원	대상자의 도주, 자해 · 타해 위험, 범죄 징후 등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보호관찰관 및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현장 대응 및 안전 확보 업무를 지원한다.

무도실무관, 어떻게 될 수 있을까

무도실무관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한다. 만 20세 이상 59세 이하의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하며, 태권도 · 유도 · 검도 · 합기도 중 한 종목에서 3단 이상의 단증을 보유해야 한다. 여기에 운전면허 1종 보통 자격도 필수다.

채용은 각 지역 보호관찰소에서 부처 공고를 통해 이뤄진다. 서류 전형은 통과하면 체력 검정과 면접, 신체검사순으로 전형이 진행되며, 최종 합격자는 약 3주간의 교육을 이수한 뒤 현장에 배치된다.

현재 무도실무관은 법무부 소속의 무기계약직인 ‘공무직’ 신분으로 채용되며, 공무원 신분은 아니다. 월급은 휴일, 야간근무수당 등을 포함해 초봉이 약 290만 원(세전) 정도이지만, 호봉제가 적용이 되지 않아 장기 근속 시 임금 상승폭이 낮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높은 체력 소모, 위험 요소가 많은 업무 환경, 그에 비해 낮은 처우는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하게 만든다. 무도실무관을 꿈꾸는 예비 지원자라면 이러한 점을 고려해 진입을 준비해야 한다.



이름 없는 실무자들, 이들을 지키기 위한 사회적 합의

무도실무관이 수행하는 업무는 단순히 전자감독 대상자를 따라다니는 감시가 아니다. 실제 범죄 발생 가능성을 분석하고, 대상자의 상태를 파악하며, 법과 현장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조정자 역할을 수행한다.

하지만 정작 그들을 지켜주는 제도는 아직 미흡하다. 출동 시 지급되는 장비는 보호관찰소마다 편차가 있으며, 방검복이나 바디캠 등 최소한의 보호 장비조차 없는 경우도 존재한다. 이러한 현실은 해당 업무를 장기적으로 수행하기 어렵게 만드는 주요 원인 중 하나다.

다행스러운 것은 무도실무관 제도가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는 점이다. AI 기반 재범위험 분석 시스템이 시범 도입되고 있으며, 정원 증원과 매뉴얼 개선, 위험 대응 교육 강화를 위한 정책 논의도 국회와 법무부 차원에서 이어지고 있다.

무도실무관은 감시와 예방의 경계에서 묵묵히 서 있는 이들이다. 한 발짝 늦으면 피해가 발생하고, 한 걸음 먼저 나아가면 재범을 막을 수 있다. 영화 속 액션보다 더 치열한 현실, 그 최전선에 있는 사람들.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이름은 ‘무도실무관’이다. 65

무도실무관의 꿈을 키우다!



자격 요건

- 대한민국 국적, 20세 이상 59세 이하
- 태권도·유도·검도·합기도 중 3단 이상 단증(단수 산정은 무도별 합산하지 않고 단일 종목에 한함)
- 자동차운전면허 1종 보통 이상 소지자
- 병역 필 또는 면제(남성)
- 우대 요건: 무도 고단자, 1종 대형면허 소지자, 국가유공자, 저소득층,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 소지자 우대

채용 절차

서류전형 → 체력검정/면접 → 신체검사
→ 약 3주 교육 후 현장 배치

신분/ 근무

법무부 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직(무기계약직) 근로자,
3교대 근무(주간/야간/비번)

급여

월 약 290만 원
(수당 포함, 세전)

기타

공고는 법무부(www.moj.go.kr) 홈페이지 법무뉴스 → 채용정보 또는
인사혁신처 나라일터(www.gojobs.go.kr) 홈페이지 → 모집공고에서 확인 가능

법무부



나라일터



챗GPT 편리함, 이면의 리스크를 묻다



글 이임복

첫째, 정보보안 문제다

생성형 AI의 사용은 가성비 면에서는 최고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의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이 아무리 오래된 기기라도, 우리는 최고 성능의 AI를 언제나 쉽게 이용할 수 있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우리가 쓰는 기기는 그냥 입력과 출력을 할 뿐이고, 진짜 연산은 저 멀리 있는 비싸고 좋은 AI 서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문제는, 우리가 물어보는 어떤 질문이든 그 데이터가 전부 서버로 전송된다는 데 있다. 그래서 기업은 물론이고 개인도 민감한 고객 정보나 개인정보를 AI에게 물어보는 건 절대 피해야 하고 조심해야 한다.

둘째, 할루시네이션(환각)이다

할루시네이션은 AI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자신이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답하는 현상이다.

예를 들어, “퇴계 이황의 광선검에 대해 알려줘?”라고 물으면 AI는 진지하게 그럴싸한 답을 해준다. 너무 그럴듯해서 잘못하면 믿기 쉽다. 이런 할루시네이션은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줄일 수는 있다. AI 회사들이 더 비싼 컴퓨팅 파워에 투자하고 기술을 개선하면 가능하다. 그렇기에 요즘 챗GPT는 같은 질문을 던지면 “그런 건 없습니다”라고 답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I가 주는 답은 언제든 틀릴 수 있다는 걸 전제로, 중요한 정보라면 반드시 크로스체크해야 한다.

2022년 11월 챗GPT가 출시되고 벌써 2년 넘는 시간이 지났다. 그동안의 변화는 놀라웠다. 친구처럼 대화하는 걸 넘어 자료 요약, 분석, 엑셀파일 생성, 작사, 다양한 글 작성에 이미지 생성과 영상 생성까지, 생각하는 거의 모든 것들을 챗GPT를 비롯한 생성형 AI들이 할 수 있게 됐다.

이렇다 보니 챗GPT를 잘 쓰는 사람들은 ‘GPT 없이는 일하는 걸 상상조차 할 수 없다’고 말할 정도다. 반면, 챗GPT와 간단한 인사말 말고는 해본 적 없는 사람들도 여전히 많다. 이렇게 AI 활용 격차가 벌어지다 보니, 지금이라도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불안감이 생긴다. 하지만 GPT가 주는 편리함에 빠지기 전에, 주의해야 할 점, 리스크부터 먼저 생각해야 한다.

이 리스크는 국가 단위의 AI 구축인 ‘소버린 AI’부터 기본소득 같은 거대한 주제까지도 연결되고, ‘어떤 AI를 써야 가성비가 좋을까’ 하는 아주 개인적인 고민까지 이어진다. 여기서는 챗GPT를 비롯한 생성형 AI를 사용할 때 꼭 생각해 봐야 할 3가지 리스크를 정리해 본다.

셋째, 현재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어렵다

대부분의 AI는 실시간으로 자신의 지식을 업데이트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챗GPT에게 “너는 언제까지의 데이터로 학습했어?”라고 물으면 “2024년 6월까지의 데이터로 학습됐다”고 말한다. (물론 질문하는 시점에 따라 다르다.)

이렇게 되면, 지금 이 순간의 뉴스나 금리 변화 같은 최신 정보를 반영한 답을 받기는 어렵다. 그래서 2025년 초부터는 대부분의 생성형 AI들이 필요한 경우 직접 웹을 검색해서 정보를 가져오는 기능을 적용했다. 덕분에 최신 정보를 반영한 답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틀릴 가능성은 존재하므로 재확인 필수다.

이 세 가지 외에도, 더 심각한 위기가 있다. 바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이다. 사실 완전히 새로운 건 아니다. 인터넷이 처음 등장했을 때도, 구글 검색이 보편화됐을 때도, 위키피디아가 널리 퍼졌을 때도 한 번씩 겪었던 일이다.

지금은 챗GPT가 뭐든 해주니까, 검색도 GPT에게, 보고서 작성도 GPT에게, 칼럼 쓰기도 GPT에게, 심지어 간단한 이메일 작성까지 GPT에게 맡기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 문의가 오면 GPT가 답변을 하고, 그 답변을 보고 또 다른 사람이 GPT에게 질문해서 다시 답변을 만드는, 일종의 GPT끼리의 대화가 벌어지는 웃지 못할 상황도 생긴다. 블로그 리뷰나 쇼핑물 댓글도 점점 GPT가 쓴 글들로 채워지고 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지금 당장 우리 모두가 GPT 사용을 멈춰야 할까? 그렇지 않다.

이처럼 광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AI의 생성물들은 언젠가는 한계에 다다르게 되어 있다.

그 이후엔 결국, 진짜 자기 생각을 담은 글을 쓸 수 있는 사람들, 자기만의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들, ‘오리지널리티’를 가진 사람들이 주목받게 될 수밖에 없다.

챗GPT가 나오기 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학교 과제나 보고서를 인터넷에서 짜깁기했다. 어차피 검색하면 찾을 수 있는 답이라면, 문제를 바꾸면 된다. GPT의 도움을 받더라도, 그걸 스스로 이해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질문을 바꾸면 된다.



그렇다면 GPT를 쓰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무작정 GPT에게 모든 걸 맡기면, 생각하고 판단하는 힘을 잃게 된다.

그래서 GPT에게 맡기기 전에, 먼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고 정리해 보는 과정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글을 쓰고 싶다면, 먼저 글의 뼈대를 스스로 만들고 전체 흐름을 생각해 본 뒤, 자료 검색이나 정리 같은 부분만 GPT의 도움을 받는 식이다.

챗GPT가 주는 편리함의 시대

정말 생성형 AI를 ‘잘 쓰는’, 그리고 스스로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 위해선, 지금보다 더 많이 경험하고, 더 많이 생각하고, 더 자주 써봐야 한다.

생각하는 힘은 결국, 스스로 써보고 부딪혀보는 데서 자란다. 📖

글쓴이 소개 **이임복**

현) 세컨드브레인연구소 대표, 인터렉티브북스 대표, 한국경제인협회 MWC 모더레이터, 한국금융연수원 겸임교수, 유튜브 일상 IT 운영자

BUSSAN

전쟁의 기억 위에 핀
삶과 평화의 동산, 마추픽추

부산

글 박선경 사진 최다영

1950년의 여름, 피란민들의 발길이 모여든 부산은 폐허 속에서도 삶을 일궈낸 임시수도이자 자유의 마지막 보루였다. 그로부터 75년이 흘렀지만, 부산의 언덕과 골목 곳곳에는 여전히 전쟁의 상처와 치유의 흔적이 겹겹이 새겨져 있다. 이번 여정은 고통의 기억 위에서 꽃피운 평화와 희망의 의미를 찾아가는 여정이다.



피란민이 빚어낸 '기적의 언덕'

감천문화마을

하늘을 향해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형형색색 지붕들. 첫 발을 내딛는 순간 마주하는 풍경은 마치 동화 속 한 장면처럼 아름답다. 하지만 이 무지갯빛 마을의 시작은 결코 아름답지 않았다. 6·25전쟁 직후 갈 곳을 잃은 피란민들이 산비탈 빈터에 판잣집과 천막을 치며 하나둘 터를 잡기 시작한 곳, 그것이 감천문화마을의 진짜 출발점이다. 절박한 생존의 공간이었던 이곳이 2000년대 마을 미술 프로젝트를 통해 '한국의 마추픽추'로 거듭나면서 연간 3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는 부산의 대표 명소가 되었다. 주말은 물론 평일에도 좁은 골목마다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가 뒤섞여 들린다. 하늘마루전망대에 올라 내려다보는 부산항의 푸른 바다와 알록달록한 집들의 조화는 숨을 멎게 한다. 절박했던 삶이 어떻게 예술이 되고 희망이 되었는지를 무언으로 증언하고 있다. 어린왕자 포토존, 감내어울터, 하늘계단을 하나씩 찾아가다 보면 마을 구석구석에 스민 피란의 숨결과 주민들의 삶의 온기를 고스란히 느낄 수 있다.



교실에 피어난 희망의 역사

부산교육역사관

감천문화마을 입구에서 도로 하나만 건너면 붉은 벽돌로 지어진 위풍당당한 건물이 눈에 들어온다. 2024년 3월 옛 감정초등학교 자리에 문을 연 부산교육역사관은 피란민들의 삶터 한복판에서 꽃피운 '배움의 역사'를 고스란히 담은 교육문화공간이다. 이곳은 부산시교육청이 2004년부터 20년간 정성스럽게 수집한 교육자료들을 바탕으로 탄생했다. 조선 후기부터 일제강점기, 한국전쟁기, 산업화 시기까지 부산 교육 150년의 발자취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다.

현재 열리고 있는 특별전 <부산의 학생들, 독립을 외치다> (2026년 1월 25일까지)는 1919년 부산 3·1운동과 항일 학생운동을 조명한다. 책가방을 메고 거리로 나선 소년 소녀들의 용기와 의지가 전시물 하나하나에서 생생하게 되살아난다. 감천문화마을에서 목격한 피란민들의 생존 의지와 교육역사관에서 만나는 학생들의 항일 정신이 묘하게 겹치며 깊은 울림을 준다.

Tip. 여정별 정보

감천문화마을

주소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내2로 203

운영 시간 3~10월 09:00-18:00 / 11~2월 09:00-17:00

* 실제 주민의 거주공간이므로 조용하고 깨끗하게 둘러보세요

휴무 연중무휴 관람료 무료

사이트 <https://www.gamcheon.or.kr>

UN평화기념관

주소 부산광역시 남구 홍곡로320번길 106

운영 시간 10:00-18:00(입장 마감 17:30)

휴무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추석 당일

관람료 무료 사이트 <https://www.unpm.or.kr>

부산교육역사관

주소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천로 130

운영 시간 화~일요일 09:00-12:00/13:00-17:00

휴무 매주 월요일, 공휴일 관람료 무료

사이트 <https://behm.pen.go.kr>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주소 부산광역시 남구 홍곡로320번길 100

운영 시간 09:30-17:30(입장 마감 17:00)

휴무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추석 당일

관람료 무료 사이트 <https://www.fomo.or.kr/museum>



세계가 지켜낸 자유의 가치

UN평화기념관

UN특구 언덕에 오르면 22개국의 국기가 바람에 펄럭이는 UN 평화기념관이 방문객을 맞이한다. 6·25전쟁 당시 대한민국의 자유 수호를 위해 목숨을 바친 UN 참전국과 참전용사들을 기리기 위해 2014년 건립된 세계 유일의 기념관이다.

전시 공간은 6·25전쟁실, UN참전기념실, UN국제평화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간별로 전쟁 발발부터 정전, 참전국 활동, 유엔의 평화 유지 역할까지를 연대기 순으로 보여준다. 전시품에는 참전국 군복과 훈장, 전사자의 편지·사진 등 실제 유물이 다수 포함돼 있어 관람객이 당시 전장의 공기를 생생히 느낄 수 있다. 또한 곳곳에 배치된 디지털 영상과 멀티미디어 키오스크는 22개국이 한국전쟁에 참여하게 된 과정과 각국의 희생을 시각 자료와 인터뷰 영상 등으로 전달해 과거를 넘어 현재 우리가 지켜야 할 평화의 의미를 깊이 돌아보게 한다.



돌아오지 못한 이들을 위한 추모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UN평화기념관을 나와 언덕 끝자락에는 2015년 개관한 국립 일제강제동원역사관이 모습을 드러낸다. 전시장에는 피해자들이 남긴 편지, 군복, 명부는 물론 처음 공개되는 미공개 유물 10점과 구술 영상이 전시돼 있다. 스크린 속 생존자들은 말문을 잊지 못하고 긴 침묵 끝에 눈빛 하나로 전쟁과 강제노동의 참혹함을 증언한다. 특히 '군함도'라 불린 하시마섬의 모형과 사진 앞에서는 숨을 죽이고 발걸음을 멈추는 관람객이 많다.

5층 희생자의 넋을 기리는 위패관 '기억의 터'로 가는 길, 이름조차 제대로 남기지 못하고 스러져간 이들의 얼굴을 마주하자 피지도 못하고 꺾어버린 그들의 청춘이 못내 애달프게 다가온다. 이곳을 나설 때 우리는 깨닫는다. 기억은 상처가 아니라,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책임이라는 것을.

그 책임을 가슴에 품고 우리는 평화의 빛을 밝히는 새로운 여정을 그려 나간다. ☎

따뜻한 정과 전문성이 만난 특별한 센터

글 박선경 사진 최다영

경남제대군인지원센터

진해의 해군기지, 창원시의 산업단지, 사천의 항공우주산업. 전직을 준비하는 제대군인에게 경남은 그 자체로 기회와 희망의 땅이다. 2016년 개소 이래 최근 3년 연속 전국 최우수 센터로 선정된 경남제대군인지원센터는 지역 산업과 유기적으로 연결된 맞춤형 전직 지원을 통해 제대군인의 안정적인 사회 복귀를 이끌어왔다. 1:1 상담을 통한 맞춤형 지원, 지역 기업과의 연계 채용, 실효성 높은 교육비 지원까지. 특별히 따뜻한 정을 나누는 직원들과 동료들이 함께하는 이곳에서는 전역 이후의 불안 대신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는 일이 시작된다.



Q. 경남제대군인지원센터의 소개 부탁드립니다.

A. 경남제대군인지원센터는 2016년 9월 창원고용복지플러스 센터 내에서 창원제대군인지원센터로 시작되었습니다. 2020년 2월 경남동부보훈지청 제대군인지원센터로 직제가 확정되었고, 같은 해 4월 창원시 마산합포구로 이전하여 현재까지 운영 중입니다. 2026년 4월에는 정부경남지방합동청사로 이전할 예정입니다. 센터는 취업상담팀, 기업협력팀, 교육행정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센터장을 포함해 총 9명으로 선임상담사 2명, 전문상담사 2명, 일반상담사 2명, 군경력상담사 1명, 센터장과 행정팀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경남 도내(양산 제외) 제대군인 및 전역 예정자 약 8,700여 명을 관리하며, 이 중 연간 약 1,000명이 전직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남 서부지역은 순회상담을 통해 접근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Q. 경남제대군인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주요 사업은 무엇인가요?

A. 경남제대군인지원센터는 제대군인의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 산업 수요에 맞춘 전직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취업상담팀**은 제대군인의 경력과 성향을 분석해 전직 방향을 설

정하고, 1:1 밀착 상담을 통해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클리닉, 면접 코칭 등 실질적인 구직 전략 수립을 지원합니다.

기업협력팀은 지역 내 우수 기업과의 네트워크를 확대하며, 채용 수요가 있는 기업을 직접 방문해 간담회를 진행하고, 채용박람회 등을 통해 고용 연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교육행정팀은 다양한 워크숍과 민간 교육기관 연계 프로그램, 직업능력개발 교육비 지원 등을 통해 제대군인의 취·창업 역량 향상을 돕고 있습니다.

Q. 경남제대군인지원센터만의 차별화된 점은 무엇인가요?

A. 경남센터는 진해 해군기지가 위치한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해군 출신 제대군인의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이에 따라 해군일자리센터와 긴밀히 협력하며, 전역(예정) 해군 장병을 위한 맞춤형 취업 상담, 제대군인 지원 설명회 개최, 취업역량강화 워크숍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원 지역의 산업 밀집도 역시 큰 강점입니다. 창원시를 비롯한 5개 유관기관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체계적인 지역 연계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사천 제3훈련비행단 인근 방산기업과의 협업 가능성도 큼니다. 이와 같은 노력의 결실로, 2022년부터 3년 연속 전국 제대군인지원센터 평가에서 최우수 센터로 선정되는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Q. 경남제대군인지원센터를 통해 성공적으로 취업·창업한 사례가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A. 진해의 한 대형 오피스텔 관리사무소는 센터의 추천으로 채용된 관리소장을 시작으로 현재는 설비, 환경, 주차 담당까지 약 20여 명의 직원 전원이 제대군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군에서 길러온 책임감과 성실함 덕분에 입주민과 고용주 모두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공군 출신 제대군인이 있습니다. 그 분은 전역을 앞두고 진로에 대한 불안 속에서 센터를 찾았고, 센터의 직업능력개발비 지원을 통해 악기 연주와 귀농 체험, 특수경비 신임교육 등 다양한 진로를 탐색했습니다. 위탁교육 수료 후 특수경비직무에 취업하여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Q. 경남제대군인지원센터를 찾는 제대군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는?

A. 가장 많이 이용되는 프로그램은 취업 상담과 직업능력개발비 지원 제도입니다. 취업 상담은 전공, 경력, 희망 진로 등을 반영해 맞춤형 취업 전략을 수립하고, 서류 작성 및 면접 준비, 기업 정보 제공까지 포괄적으로 지원합니다.

직업능력개발비 지원은 자격증 취득이나 직무교육을 원하는 미취업 제대군인, 창업 초기 회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며, 경남센터는 전국적으로도 이용률이 높은 편입니다. 이 제도는 실질적인 역량 향상과 취업 연계에 큰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Q. 올해 경남제대군인지원센터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역점 사업은 무엇인가요?

A. 2025년 경남센터는 2024년 11월 창원시 등 5개 유관기관과의 MOU 체결을 기반으로 한 협업 연계 강화를 핵심 역점 사업으로 추진 중입니다.

2월에는 실무자 간담회, 3월에는 공동 워크숍, 4월에는 산업현장 견학을 진행했으며, 6월에는 진해 해군일자리센터와 군 인사 담당자 간담회를, 9월에는 '경상남도 일자리 종합 박람회' 주관 참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실질적인 체험 중심 프로그램을 확대해 제대군인의 취업 연계와 사회 정착을 보다 현실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Q. 경남제대군인지원센터를 이용하는 제대군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A. 경남제대군인지원센터는 제대군인 여러분에게 언제든지 열린 공간, 가족 같은 공간이 되고자 합니다. 요즘은 온라인으로 센터 이용 신청과 접수가 모두 가능하지만, 처음 한 번은 직접 방문하셔서 대면 상담을 받으신다면 더욱 유익하고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처음 방문하는 분들도 편하게 들어와 상담사와 고민을 나누고, 개인별 맞춤 진로 방향을 함께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역 이후의 불안은 누구에게나 있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그러나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센터가 마련한 상담과 다양한 제도를 적극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군에서 쌓은 경험은 사회에서 매우 소중한 자산입니다. 경남센터는 늘 여러분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 ☎



경남제대군인지원센터

주소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305 KT서마산지점 2층
운영 09:00~18:00(주말, 공휴일 휴무)
문의 1666-9279(군인친구)

“항상 웃음꽃이 피어나는 센터
제대군인들의 든든한 안식처 같은
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환석 경남제대군인지원센터장

저는 2022년 2월 1일자로 부임한 이후 제대군인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에 귀를 기울이며 지역 기업들에게는 제대군인들의 우수성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데 힘써왔습니다. 그 결과 저희 센터는 전국 제대군인지원센터 평가에서 2022년부터 3년 연속 최우수 센터로 선정되는 성과를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대군인 채용우수기업으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 3곳이 선정되었으며, 작년에는 창원시, 고용노동부창원지청 등 창원시 일자리 유관기관 5곳과의 MOU 체결로 지역 협업 기반도 더욱 강화했습니다. 또한 지역의 채용박람회에도 적극 참여하여 제대군인의 취업지원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남센터는 2025년 올해도 우리 제대군인들의 성공적인 전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해 제군센터를 보다 많이 알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I N T E R V I E W

여름의 한가운데, 나를 위한 리셋

7월, 꿈에 불을 지피는 자기계발서



왓츠 유어 드림

사이먼 스크립 | 북파머스

15세에 노숙 생활을 하며 사업을 시작한 자수성가 기업가 사이먼 스크립이 전하는 꿈과 용기의 메시지.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을 통해 삶의 방향과 동기를 되돌아보게 한다. 막연한 꿈을 실현 가능한 목표로 이끄는 실질적 조언이 담긴 자기계발서이다.



세이노의 가르침

세이노 | 데이원

필명 'Say No'처럼 통념에 도전하며, 독자에게 실질적인 자기 성장의 길을 제시한다. 특히 돈의 본질과 삶의 태도를 냉철하게 되짚으며, 자본주의 사회에서 흔들리지 않는 삶의 기준을 제시한다.



파서블

김익한 | 인플루엔셜

'30일 일상 기록법'이라는 독특한 접근을 통해, 지속적인 기록이 인생의 방향과 사고를 바꿀 수 있음을 보여준다. 국내 1호 기록학자의 정의를 바탕으로,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만든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기록으로 자기 삶을 재발견하고 싶은 이에게 적합하다.

한 달에 한 가지, 분리배출, 물로 헹구기만 잘해도 반은 성공!

물로 헹구는 작은 실천이 분리배출 성공의 핵심이다. 페트병, 유리병, 플라스틱 용기 등은 내용물을 비우고 깨끗이 헹군 뒤 배출해야 재활용이 가능하며, 오염된 채 버려지면 일반 쓰레기로 처리된다. 세척이 어려운 라면·과자 봉지는 투명 봉투에 따로 모으거나 종량제 봉투에 담아야 한다. 깨끗한 재활용품은 자원순환과 탄소 배출 감소에 기여하며, 탄소중립을 위한 첫걸음이 된다.



독자퀴즈

QUIZ

전자발찌를 착용한 사람을 24시간 밀착 감시하고, 긴급 상황에 즉시 출동해 범죄를 예방하는 사람은 누구일까? (28~31P 미디어로그 참고)

- ① 공무원 ② 무도실무관
③ CCTV 관제사 ④ 소방관

※ 7월 20일(일)까지 정답과 이름, 주소, 연락처를 리:스펙 제대군인 담당자 이메일(seung29@korea.kr)로 보내 주시기나 웹진(http://vnet-magazine.kr)에서 직접 참여해 주세요.(당첨 결과 문자 통지)

2025년 6월호 독자퀴즈 당첨자

김민주(부산 북구) 김용수(서울 은평)
남기홍(경기 평택) 박상빈(경기 오산)
조현모(경남 창원)

※ 당첨되신 분께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 3만 원 상당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 드립니다.
※ 6월호 정답: ③ 국민취업지원제도

2025년 7월 이달의 6·25 전쟁영웅



롤랑 가브릴로프 프랑스 육군 상사

Roland Gavriloff 1926. 11. 25.~1952. 10. 6.

프랑스대대 롤랑 가브릴로프 상사
화살머리고지에 거룩한 이름을 새기다

롤랑 가브릴로프 프랑스 육군 상사는 6·25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 유엔군 프랑스대대 공병 소대의 부소대장으로 한국에 파병되었다. 그는 강원도 철원의 화살머리고지 전투에서 압도적인 중공군의 공세에 맞서 포격지원과 백병전으로 적을 격퇴하던 중 전사했다. 그의 헌신적인 전투로 프랑스대대는 중공군을 섬멸할 수 있었고 프랑스 정부는 그가 군인으로서 보여준 탁월한 능력과 헌신을 기려 상사 진급과 함께 프랑스 최고 훈장인 '레지옹 도뇌르'를 추서했다.

롤랑 가브릴로프 상사의 발자취

1944년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프랑스 육군 자원입대
1948~1950년 제1차 인도차이나 전쟁 참전
1952년 10월 강원도 철원 화살머리고지 전투 중 전사
1953년 8월 프랑스 최고 훈장 '레지옹 도뇌르' 추서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www.mpva.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